이해할 수 있는 깨달음, 함께 논한다

홍창성 교수, 〈깨달음과 역사〉 영문판 강연 나서

지난해 초 한국불교계를 뜨겁게 달군 소위 '깨달음 논쟁'이 다시 재점화될 수 있을까? 당시 수불 스님의 기고 '조계종지의 현대적 이해: 현응 스님의 발제문을 읽고'에 대해 반론을 제기한 홍창성 미국 미네소타대 철학과 교수가 최근 〈깨달음과 역사〉 영문판을 발간, 강연과 토론에 나선다.

아카마지(대표 김현진)는 6월 21·22·28·29일 오후 7시 총 4차례 걸쳐 서울 체부동 사찰음식전문점 마지서 홍창성 교수 초청 〈깨달음과 역사〉 영어 강연을 연다. 눈여겨볼 점은 토론이 1시간으로 강연(50분)보다 길다는 것. 열린 토론을 바탕으로 강연자와 참가자들의 견해를 주고받기 위함이다.

홍창성 교수는 6월 12일 기자간담회서 〈깨달음과 역사〉 영문번역과 강연의 배경으로 '토론의 가치'를 꼽았다. 홍 교수는 "이 책을 처음 접하고 사람들과 토론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걸 알리고 싶었다. 그리고 대중이 이해하는 깨달음에 대해서 마음을 터놓고 토론해야 막연함을 해소할 수 있다"면서 "서양에서는 불교라고 하면 티베트불교가 전체인 양 소개된다. 동아시아불교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이런 기회를 통해 한국불교가 무엇인지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접근하려 한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한국불교가 말하는 깨달음 안에 '번뇌로부터 벗어난'이라는 고차원적인 의미가 담겼다고 주장했다. 홍 교수는 "언제부턴가 깨달음에 번뇌에서 벗어난 듯한 심오한 뜻이 생긴 것 같다. 삶과 세계를 연기와 공의 관점에서 파악하는 것을 넘어 특정한 경지를 뜻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홍 교수는 또 지난해 벌어진 온라인상의 '깨달음 논쟁'을 넘어 오프라인에서 각자의 주장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했다. 그는 "깨달음에 대해 정의를 내린 분들이 와주셨으면 한다. 한국불교 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토론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윤호섭 기자**



聖寶 '사리', 불자들 곁으로 서울 조계사(주지 지현)는 6월 9일 전국 국공립 박물관 소장 사리를 장기대여 형식으로 반환받아 친견법회를 봉행했다. 반환되는 사리는 총 129과로 3년에 걸쳐 진행된다. 이번에 1차로 반환된 사리 40과 중 분황사와 무량사 사리는 원소장처에 봉안되며 나머지 사리는 조계사에 봉안된다. 사진은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오른쪽 첫째)이 반환된 사리를 유리보관함에 봉안하는 모습. **노덕현 기자**

"사찰 양식에 불교 환경가치 서려"

유정길 운영위원장, 2017 종교인대화마당서

종교환경운동과 일반사회운동의 차이점과 특징을 짚어보고, 종교가 지향해야할 환경운동 방법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열렸다.

5대 종교 환경 단체로 구성된 종교환경회의(상임대표 법일)는 2017 종교인대화마당 '종교환경운동은 일반사회운동과 무엇이 다른가'를 6월 14일 조계사 전법회관 교육장에서 개최했다.

이날 불교계 대표로 유정길 불교환경연대 운영위원장은 '불교환경운동의 특징과 방법, 그리고 지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유 위원장은 △중중무진 인드라망의 세계관 △생명중심주의와 생태학적 전일론 △공사상, 무아, 불이사상 △불살생의 생명윤리 등 불교 생태사상을 소개하며 불교계 환경운동의 근본적 가치를 강조했다. 특히 유 위원장은 생태친화적이며 자연에 부담을 주지 않는 사찰 건축 양식과 발우공양·도량석 예불·방생문화 등이 '모든 생명은 존귀하다'는 불교의 전통가치를 추구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박아름 기자**

中·美 비교종교 보조국사 연구 고찰

보조사상硏, 정기 월례회서 각국 연구현황 점검



중국·北美 등 연구 동향 살펴
보조사상 미친 영향도 분석해
하반기, 禪·敎 부문별 조명한
보조연구 30주년 세미나 계획

"중국에서는 어느 선사도 보조 지눌과 같은 경전 조합을 제시한 적 없다."(곽뢰)
"북미지역에서 수행된 지눌의 연구는 북미에 국한되지 않고 유럽에 영향을 미쳤다."(김지연)

보조국사 지눌(1158~1210·사진)의 연구가 세계 각국에서 어떻게 연구되고,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점검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보조사상연구원(원장 김호성)은 6월 16일 서울 법련사 문화강당서 '보조사상 연구의 현 단계'를 주제로 120차 정기 월례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중국과 북미, 비교종교 부문에서의 보조 지눌 연구에 대한 현황과 성과에 대한 분석 논문들이 발표됐다.

中-보조 禪法 연구 집중

한국과는 가장 가깝고, 불교 교류사적으로도 친밀한 중국의 경우 보조 지눌의 연구는 그의 '선법(禪法)'에 집중돼 있다.

'중국학계의 보조 지눌 연구'를 발표한 곽뢰 동국대 불교학술원 연구원은 "보조 지눌 연구에 대한 관심은 2000년 이후 많아졌다. 연구 내용 대부분은 그의 선사상이며, 연구자는 연변대학 교수와 학생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곽 연구원은 보조 지눌 연구의 1세대 학자인 양증문, 2세대 학자 위도유, 3세대 학자 이해도의 연구를 소개했다.

양증문은 보조 지눌의 선법을 진심불성론·돈오점수의 해탈론·수행실천론 등 '삼론(三論)'으로 개괄하고 있다. 위도유는 보조 지눌이 기존의 중국 선사와는 달리 〈금강경〉과 〈육조단경〉, 〈대혜어록〉, 〈신화엄경론〉 등의 전적으로 자신의 선법과 사상을 완성했다는 데 주목한다. 이해도의 경우 지눌의 '진심(眞心)' 사상은 혜능-신회-종밀로 이어지는 이론과 체계를 계승하며, 특히 종밀의 영지심(靈知心)에 기초함을 밝힌다.

北美-번역부터 연구까지 활발

북미 지역의 보조 지눌 연구는 저서 번역과 그의 사상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 등 포괄적이다. '북미불교에서 보조 지눌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발표한 김지연 금강대 HK연구교수에 따르면 북미 지역에서 보조 지눌 관련 연구자는 △로버트 버스웰 UCLA 교수 △박성배 스토니브룩대 교수 △박진영 아메리칸대 교수 △피터 그레고리 스미스 칼리지 교수 △로버트 지멜로 노트르담대 교수 등이다.

이들은 연구논문과 지눌 저서 번역을 통해 그의 사상을 세계에 전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연구교수는 "지눌에 대한 북미불교의 연구, 특히 버스웰 교수의 연구는 한반도 승려인 보조 지눌을 아메리카 대륙에 옮겨놓았고, 한국불교를 연구하는 도날드 로페즈, 도날드 미첼 등에 기본 자료를 제공했다. 이는 북미에 국한되지 않고 유럽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류제동 성균관대 초빙교수는 '그리스도교와의 비교적 관점에서 바라본 보조사상 연구 30년'을 통해 보조 지눌의 돈오점수론과 칼 바르트·토마스 머튼 등의 사상을 비교 고찰한 연구 성과를 소개했다.

류 교수는 "길희성과 강건기, 노버트 쉬퍼스는 지눌과 그리스도교의 대표적 신학자 영성가들과의 비교를 통해 돈오점수론이 그리스도교의 탁월한 신앙인들의 사상과 깊이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번 월례회 이후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은 보조사상연구원은 올해 하반기 선·교·율 등 각 분야에서의 보조 사상 연구를 조명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예방적 살처분, 학살을 멈춰라"

조계종 사회노동위·동물단체, 13일 기자회견

지난해 살처분만 3000만 마리
AI 상시 발병 근본책 마련해야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대책 아닌 대책이 되어버린 조류독감 발생 지역 농장 반경 500m 강제적 살처분을 멈춰야 한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혜용)와 케어·카라 등 동물보호단체는 6월 13일 국민인수위원회 광화문 1번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류독감 발생으로 인해 발생되는 예방적 살처분을 멈추고 근본적인 예방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단체들은 낭독한 기자회견문에서 "지난해 살처분 당한 닭·오리 숫자가 3000만 마리를 넘었다. 여름에도 조류독감이 발병하는 것을 보면 철새가 원인이라는 축산당국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며 "조류독감의 예방 대책으로 멀쩡한 닭과 오리를 무조건 땅에 묻는 일은 죄를 짓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와 동물보호단체는 6월 13일 국민인수위원회 광화문 1번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류독감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인간의 무지와 무능, 탐욕이 만들어 내는 살생은 살인과 같은 것"이라며 △조류독감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 △객관적 조사를 위한 '조류독감 발생 원인 규명위원회' 구성 △원인 파악조차 못하는 축산 당국에 대한 문책 △이윤만 추구하는 축산자본에 대한 조사 등을 문재인 정부에 촉구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장 혜용 스님은 "이 세상은 인간과 동물이 더불어 살아가는 구조다. 동물의 고통은 최종적으로 인간에 돌아가게 돼 있다"며 "현재 이뤄지는 집단 사육 방식의 폐해는 이제 인간에게 인과의 법칙으로 회귀하려 한다. 공존, 공생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단체들은 기자회견 직후 인수위원회를 찾아 관련 내용을 접수하고 인수위원장의 면담을 요구했다. 또한 최종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면담도 추진할 계획이다. 기자회견에는 사노위 위원장 혜용 스님을 비롯해 위원 고금·혜문·도철·현성·지몽·우담 스님 등이 참석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종 선암사 주지 금곡 스님 임명

문화사업단 국장에 묘인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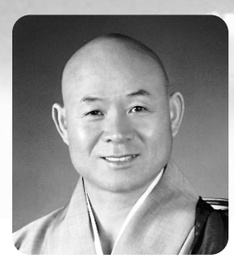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6월 12일 조계종 선암사 주지에 금곡 스님〈사진〉,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사업국장에 묘인 스님을 임명했다.

선암사 주지 금곡 스님은 성욱 스님을 은사로 1982년 수계(사미계)했으며, 낙산사·보광사·흥천사 주지를 비롯해 총무원 사회부장, 재무부장, 호법부장, 제15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했다. 현재 제16대 중앙종회의원 및 총무원장종책특보단장을 맡고 있다.

또한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사업국장 묘인 스님은 법등 스님을 은사로 1998년 수계했으며, 현재 화엄탑사 주지를 맡고 있다. **윤호섭 기자**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2017년도 남경 의대(중의학) 학생 모집



혜인스님
한국총장

조기 유학생 모집
어학단기반 모집
● 초 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c.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남경중의학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100명	• 최종학력증명 1부 • 최종성적증명 1부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부
석사과정	3년	5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 등

❷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❸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제약공장,교육병원12,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 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 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❹ 전형방법 및 모집기간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모집기간 : 2017년 6월 30일까지 수시전형

❺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 한국 사무처 –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불교조계종 교학과에서 직접 교부 (지방은 우편으로 배부 가능) www.njutcm.co.kr
▶ 접수 : 불교조계종 한국분교(빠른 접수 가능)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논현동 2-13 2층)
▶ 제출서류
특별전형 : 최종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 기 타
어학연수 및 조기유학에 관한 문의는 불교조계종 국제교류처(02-511-1080)으로 문의 바람.

❻ 학비(등록비 및 보험료 포함)
▶ 학사 과정 : 매년 25,800위안
▶ 석사 과정 : 매년 33,800위안
▶ 박사 과정 : 매년 41,800위안

■ **남경중의약대학(南京中醫藥大學)**
南京市仙林大道138號(210023)
138 Xianlin Rd., Nanjing 210023, P.R.China
E-mail : overseas@njucm.edu.cn
Website : www.njucm.edu.cn

■ **한국상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교육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
▶ 교학처 : (02)511-2026, 2027
Fax (02)511-2028
▶ 총장실 : (02)511-1080
http://www.njutcm.co.kr